

독특한 형태와 무늬, 색깔로 민족적정서가 풍기는 우리의 조신옷.

언제 어디서 보아도 조선옷이 안겨주는 민족적정서와 미학적감흥은 특별하다. 민족적색채가 짙고 우리 겨레에게 잘 어울리는 조선옷에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아름다운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감지한 조선민족의 낮과 기상이 그대로 비쳐있는 훌륭한 민족옷을 가지고있는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것인가.

언제인가 대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러왔던 외국인들도 저저마다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옷차림새에 반하여 《우아하고 아름다운 민족옷》, 《조선옷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빼들었다고 한다.

사실 그때 외국인들은 우리 민족의 명절옷과 무대옷만 보고 감탄하였지만 조선옷에는 그외에도 일상옷, 레복, 관복 등 환경과 조건에 맞게 입을수 있는 우수한 옷들이 많다. 평상시에 입는 일상옷만 해도 저고리, 등거리, 속적삼, 바지, 잠뱅이, 겹옷, 치마, 달린옷 등 다양하다.

이밖에 옷들의 룩팍선들이 대체로 직선으로 되어있으며

## 고상하고 우아한 우리의 민족 옷

로 입으면 몸체의 룩팍보다도 옷의 룩팍선이 강조되어 우아하면서 또 매우 품위있게 보인다. 그리고 옷의 개별적인 요소들인 동정과 한쌍의 옷고름, 선이나 회장, 색동 등은 우리 민족옷에서만 볼수 있는것으로서 독특한 그 멋은 조선옷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옷색갈도 일반적으로 연하고 밝으며 흰옷이 많은데 이것은 단군의 건국전설과 인연이 있으며 또 깨끗하고 순결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많이 관련된다.

소박하면서도 우아하고 정결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감성과 취미, 고유한 생활방식에 알맞는 독특한 조선했.

특히 여성들이 입는 치마저고리야말로 세상에 자랑할만 하다. 조선치마저고리는 그 세련된 형태와 무늬, 색깔로 하여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민족의상중의 하나로 자랑될치고있다.

우선 그 형태구조상 매우 우아하고 아름답다. 예로부터 우리 여성들은 전통적으

로 치마저고리의 외형상특징을 놓고 《상박하후》한것이 멋이라고 일러왔는데 그 뜻인즉 저고리는 짧고 치마는 길고 풍만한것이 안정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어 여성들에게 더없이 잘 어울린다는 말이다.

옷무늬와 옷색갈도 조선치마저고리의 아름다움을 돋구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치마저고리의 옷무늬로 잔잔하고 은근하면 서도 섬세한 무늬들을 좋아하였는데 무늬색갈은 옷바탕색과 조화를 이루는 고상한 색을 선택하였다.

옷색갈도 고상하고 선명하면서도 순결하고 부드러운 미를 사랑해온 우리 여성들은 봄철에는 새 짝이

울트고 푸르러가는 자연환경에 어울리게 연분홍색이나 연두사기, 연자주색, 노란색과 같은 연하고 밝은 색깔의 치마저고리를, 여름철에는 신선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흰색이나 연한 푸른색의것을 즐겨 입었으며 오후백과 무르익는 가을철에는 도라지꽃, 들국화 등



본사기자

우리 나라에는 지방마다 특색 있는 민요들이 많다.

그중에서 서도민요는 조선민요의 우수한 특성을 뚜렷이 가지고있는 대표적인 민요이다.

서도민요는 우리 나라 서도지방에 포함되는 오늘날의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황해남북도의 민요들을 말한다.

서북지방민요 또는 랑서 지방민요라고도 한다.

《서도아리랑》, 《릉강가나리》, 《양산도》, 《도라지타령》, 《풍년가》, 《박연곡포》 등이 대표적인 서도민요들이다. 서도민요는 우리 민족의 풍부한 생활감정을 폭넓게 담고있다.

나팔꽃은 메꽃과에 속하는 한해살이난출식물로 줄기는 2~3m로 자라며 다른 물체에 왼쪽으로 감기면서 뻗어나간다.

6월말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7~8월에 많이 피며 늦가을까지 피어나다.

꽃은 이른 아침부터 피어서는 저녁이 되면 지곤 하는데 이처럼 꽃이 피어있는 시간은 짧으나 매일 차례로 많은 꽃이 피어나 아름답게 보인다.

나팔꽃은 꽃의 모양이 나팔처럼 생겼다고 하여 지어 진 이름이다.

나팔꽃씨는 고려 약처방에서 《견우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부르게 된데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서도민요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농업노동과 어부들의 노동생활을 반영한 노동민요들과 사 람들의 민족적정서와 세태 풍속을 반영한 서정민요들이다.

서도민요는 아름답고 유순한 선율정서를 가진 조선민요의 우수한 특징을 훌륭하게 체현하고있다.

거의 모든 서도민요들은 밝은 정서를 가지는 선율음조로 이루어져있다.

선율을 안받침하는 장단들로는 궁거리장단이 나 양산도장단과 같이 밝고 흥겨운 정서를 가지는 장단들이 많이 리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하여 서도민요는 우리 나라 민

요에서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구전민요들은 물론 많은 신민요들이 서도민요의 선율을 본따거나 그것을 기초로 하여 창작되었다.

서도민요의 우수한 선율 특색성을 잘 살린 민요종의 노래 《바다 만풍가》를 비롯한 많은 노래들은 사화자의 생활의 참모습을 생동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민족의 향취를 한껏 풍겨주고있다.

민요를 위주로 하여 민족음악을 발전시킬데 대한 공화국의 정책적문제반향에 의해 서도민요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본사기자

팔꽃씨가 들어있는 뒤옹박을 슬그머니 등뒤에 감추며 도리질을 하는것이였다.

랑반이란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백성들인지라 나팔꽃씨를 순순히 내놓을리 만무하였다. 하는수없이 랑반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있던 황소를 끌고 가서 나팔꽃씨와 바꾸어 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후부터 사람들은 나팔꽃씨를 소를 팔고 가서 바꾸어온 씨앗이란 뜻에서 《견우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본사기자

## 꽃이를 유래와 전설

## 견우자 (나팔꽃씨)

다 구하여 써보았으나 신통한 약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랑반의 귀를 번쩍 트이게 하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 소문인즉 나팔꽃씨가 변비증에 특효가 있다는것이였다.

랑반은 급히 나팔꽃씨를 구하려 길을 떠났다. 집집마다 빠짐없이 훑으며 나팔꽃씨를 구걸했으나 그 누구도 신통 내놓지 않았다. 지어 어떤 집들에서는 나

팔꽃씨가 들어있는 뒤옹박을 슬그머니 등뒤에 감추며 도리질을 하는것이였다.

랑반이란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백성들인지라 나팔꽃씨를 순순히 내놓을리 만무하였다. 하는수없이 랑반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있던 황소를 끌고 가서 나팔꽃씨와 바꾸어 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후부터 사람들은 나팔꽃씨를 소를 팔고 가서 바꾸어온 씨앗이란 뜻에서 《견우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본사기자

## 《람벌》과 《란벌》

《람벌》과 《란벌》은 서로 뜻같은 말의 관계에 놓이는 단어들이다. 그것은 이 단어들이 다같이 《나루를 망랑 찌내는데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의미에서 보면 이 두 단어 둘사이에도 의미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단어 《람벌》(濫伐: 넘칠람, 칠 벌)은 찌어서 할 나무대수가 넘쳐나게 망랑 찌어낸다는것을 의미한다.

레: 100배만 잘라는 하였는데 50배나 더 람벌을 하다. 하지만 《란벌》(亂伐: 어

《거 참, 별맛이다.》

언제 아왔더니 하고 왼손 위에 손바닥만 한 부루임을 서니있 겹쳐놓고 그우에 조밥을 보기 좋게 한술에 떠놓는 다음 고추가루를 친 된장을 뽀얀 시알아버지는 그것을 쪼뽇 꾸러 크게 벌린 입에 넣었다. 그 모습은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군침이 꿀꺽 삼켜지게 하였다.

아침밥을 맛있게 먹은 시알아버지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거 참, 조화는 조화다. 같은 부루쌈에, 같은 조밥에, 같은 된장에다 고추가루를 친것밖에 없는데 이렇게도 맛이 달라지다니...》

시알아버지는 아침밥도 점심밥도 한그릇을 다 비웠다. 장씨는 날아갈것만 같았다. 어쩌다 만들어올린 수단같은 별식도 절반만나 남겼을 시알아버님이 이번에는 밤 한그릇을 다 내시었다는걸 시골에 나가있는 남편과 목화밭을 지키는 시아버님이 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본사기자

의 색깔처럼 청신한 느낌을 주는 색깔이나 감색, 단풍색 등의 풍만한 색깔을 택하였다.

이렇듯 조선치마저고리의 옷형태와 옷무늬, 색깔 하나에도 우아하고 정결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감성과 취미, 생활양식이 그대로 비쳐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조선옷은 슬기롭고 긍지높은 우리 민족이 대대로 세상에 자랑하며 빛내가야 할 민족의 재부이다.

본사기자

## 책 읽기와 뇌 발달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경우 어린이들의 뇌신경조직이 빠르게 성장한다고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의 두뇌조직이 책을 읽어주는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책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어린이의 머릿속에서는 수천개의 두뇌세포가 활동하기 시작하며 조직적인 결합도 강해진다고 한다.

동시에 새로운 두뇌세포가 형성되기때문에 아이가 만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최소한 10살이 될 때까지 매일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의 언어감각이 늘어나는 등 지능발달이 촉진된다고 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책을 읽어주는것은 어린이들의 지적성장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된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조용한 환경속에서 하며 끝난 다음에는 책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이해정도를 알아보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 보관에서 주의해야 할 식료품

—생달걀을 생강, 파 등과 함께 두지 말아야 한다. 생달걀알껍데기에는 포세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 생강이나 파의 자극성냄새가 들어갈수 있으며 일단 자극성냄새가 들어가면 달걀이 변질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 —차일을 비누, 사랑, 과일

본사기자

## 개성고추장 (3)

글 전철호, 그림 김윤일

이렇게 입맛을 돌린 시할아버지는 병석에서 일어나 애눌들이 우리 나라를 넘겨다보고있는데 어서 빨리 궁술을 젊은이들한테 넘겨주어야 하겠다면서 자나산의 활터에까지 써영씨영 올라갔다.

가을이 왔다.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마주했던 곁상을 들고 나오는 장씨의 마음은 또다시 무거워졌다. 시할아버지가 그렇게 달게 잡수시던 고추가루를 친 된장에는 술갈자라도 나지 않았다.

부엌에 따라나온 시할머니는 장씨의 귀에 대고 늙은이의 입맛은 입쓰리하는 녀인들처럼 까다로우니 너무 상심말라고 말하느것이였다. 시할아버지는 또 자리에 누웠다. 하루종일 물레를 돌리는 장씨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하였다.

시할머니 말씀대로 늙은이의 입맛은 어찌할수 없단 말인가. 한집안의 기둥이라는 남편이 풀이나 팔려 여거지미 퍼들어나다지 않으면 안되는 가난한 살림에서 랑반부자네 집들처럼 고기불이

##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일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 기념특강을 진행합니다.

강의제목: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의 기본추동력

강의시간: 1강의

강의날자: 주제103(2014)년 6월 14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평양민속공원을 찾은 우리는 탐구역안에 있는 유적유물인 불일사 5층탑의 모형도 돌아보았다.

우리를 안내한 민속공원학술연구실 실장 류충성은 여기에 있는 불일사 5층탑은 현재 개성시 방직동에 있는 고려시기의 유적을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놓은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불일사 5층탑은 밀단과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높이는 7.94m(탑머리없이)이다. 탑머리는 없어졌던것을 새로 만들어붙인것이다. 밀단은 아래 우의 두단으로 되었다. 아래 우 밀단은 다 밀돌, 가운데돌, 갑돌로 되었다. 밀단의 가운데돌 매 면마다의 모서리와 복판에 4개의 기둥을 둘우세웠다. 옷밀단 갑돌밑에는 세단의 받침을 주고 우에는 약간한 물매를 주어 탑몸을 받치게 하였다.

탑몸은 5층이며 매 층에는 고임과 몸돌, 지붕돌이 있다. 몸돌들에는 모서리마다 모기둥을 둘우어세웠으며 탑몸의 너비와 높이는 위로 올라가면서 차례줄임을 주었다. 매 층 지붕돌 밑면은 조금 불룩하게 만들고 세단씩의 처마받침을 두었으며 지붕면은 가벼운 곡선으로 비교적 급한 물매를 이루었다. 처마의 웃선과 밑선은 다같이 랑쪽 가늉으로 가면서 가법게 둘러었다.

그중에서도 첫층 몸돌만은 류달리 높게 하였는데 이것은 탑을 무게있게 보이게 하면서도 시각적으로 지루한감을 적게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첫층 몸돌안에 유물을 넣어 두려는 실용적목적과도 관련되어있다는것이였다. 실지로 원래의 탑을 판문



본사기자

불쑥 길금가루를 뒤편에 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길금가루만 들어가면 옛죽이 달달해지고 술밥도 들근해진다. 장씨는 앞치마를 찾아 띠고 쓰락에서 망돌을 닦고있는 시할머니한테로 다가갔다.

《할머니, 혹시 길금가루를 뒤편에 친적이 있나이까?》

《또 그 생각이냐? 할아버지때문에 너무 근심 말아. 근심엔 여원다고 하더라. 그

메주를 쓸적에 단맛을 더 넣수 없을가 해서 길금가루를 친적이 있었어. 그런데 재미를 보지 못했다니.

이젠 그런 생각을 제발 말여라. 우리 살림에 그만큼 밥상을 차려냈으면 랑반부자들을 부러워하겠느냐.》

장씨는 한숨이 나가는걸 얼른 앞치마를 들어 가리우고 부엌에 들어갔다. 술에 쌀을 안치고 이중알에 쪄고있어야 불을 때느라니 이마돌우에 보리길금이 새빨

고 소금과 고추가루를 섞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가. 분명 길금가루는 찰기가 센 떡밀지라도 물먹은 진흙덩이처럼 삭여낼것이고 그러면 옛처럼 달아질것이다. 여기에 짭짤하고 매콤한 맛이 보태지고 그와 함께 새빨강게 눈맛이 난다면 그게 좋은 반찬이 아닐까.

《밥타는 내가 나누나.》 시할머니가 부엌문을 열며 하는 소리였다.

아빨새!

장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술뚜껑을 열었다. 밥타내가 물씬 코를 찔렀다.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이런 일은 한번도 없었는데 이제 무슨 법이람.

《아가, 이 할미가 잘못했다. 안 일을 몽땅 아가한테 맡겨놓고...》

시할머니가 장씨의 손을 잡고 혀를 차는데 시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서며 《제가 잘못했나이다. 주책없이 늙은 티를 내며 구경만 했으니...》

하고 말했다.

《할머니, 어머니, 그런 말씀일랑 마시와요. 제가 그만 공상맞게 판생각을 하다가...》

시할머니는 밥주걱을 장씨의 손에 들려주며 말했다. 《됐다. 술치가 어째서? 어서 저녁을 차리자꾸나.》

리다 병날라.》 《할머니...》 《이런 망령 봤나. 금방 길금가루를 뒤편에 친적이 있냐고 물었지. 내 언젠가

간 고추타래를 안고 돌아가는 모습이 비쳐졌다. 뒤편엔 길금가루를 뿌려야 소용없다니 그런 그만두고 떡반죽에 길금가루를 치